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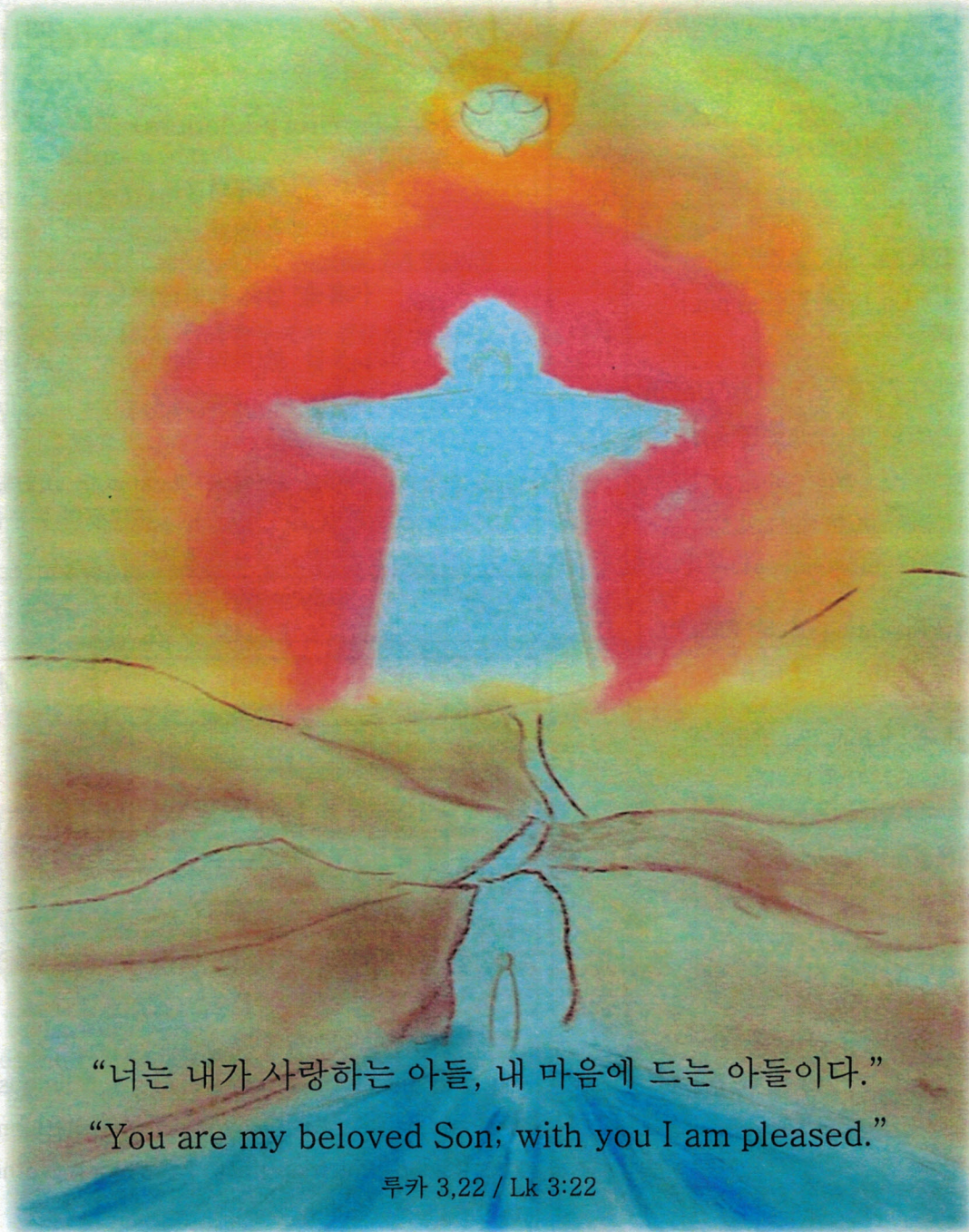
1/9/2022

22-03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주님 세례 대축일

(Wh) The Baptism of the Lord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pleased.”

루카 3,22 / Lk 3:22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윤(심포로사)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1월 / January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For true human fraternity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주님 세례 축일 (다해) / The Baptism of the Lord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After the Lord was baptize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 Spirit descended upon him like a dove, and the voice of the Father thundered: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제1독서/First Reading】 이사 42,1-4.6-7 / Is 42:1-4, 6-7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ㄷ-10(◎ 11ㄴ) / Ps 29:1-2, 3-4, 3, 9-10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The Lord will bless his people with peace.

【제2독서 / Second Reading】 사도 10,34-38 / Acts 10:34-38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마르 9,7 / Mk 9:7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 voice of the Father thundered: This is my beloved Son, listen to him.

【복음 / Gospel】 † 루카 3,15-16.21-22 / Lk 3:15-16, 21-22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요한 1,32.34 / Jn 1:32,34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 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Behold the One of whom John said: I have seen and testified that this is the Son of God.

1/9 미사지향 (Mass Intention)

연미사(D): 이미카엘, 김울리안나, 이블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양헬렌, 이화순 카타리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베드로, 이종모 바드리시오, 윤애자 마리아, 이수잔, 김베드로, 박살로메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레자 요한, 김다니엘, 오글로리아와저스틴, 신모니카 가정,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 & 조앤 가정, 김미카엘라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이사 42,1

Upon him I have put my spirit,
he shall bring forth justice to the nations. Is 42,1

주님 세례 축일에 알아보는 세례명과 수호성인 의미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축일은 아울러 신앙인들이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신의 세례를 되돌아보게 한다. 수호성인을 정하고, 세례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자 했던 각오를 기억하는 것이다. 세례 때 수호성인을 정하고 세례명을 받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세례명과 수호성인의 뜻에 대해 알아본다.

■ 의미와 유래

세례명은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으로, 영명(靈名) 혹은 본명(本名)으로 부른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안논치아타(성모영보), 아가페(사랑) 등 주요 교리나 개념을 세례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56항은 “세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고 세례명에 대해 밝힌다. 아울러 “수호성인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며 전구를 보장해준다. ‘세례명’은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세례 때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해 새롭게 영성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한다. 이름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를 이끌었던 모습은 성경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사라이가 사라(창세 17,15)로 바뀐 것과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달라진 것 등이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개인 이름이 가지는 영적인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된다. 그만큼 개인이 지니는 이름이 그 사람의 소명(召命)과도 연결돼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세례명의 중요성이 되새겨진다.

세례를 받으며 한 성인을 수호자로 삼는 풍습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107년)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3세기 중엽, 교부 치프리아노나 암브로시오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유아에게 세례를 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성인 순교자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덕성을 본받고, 도움을 전구하며 일생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분 뜻을 기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수호성인에 대해 「가톨릭대사전」은 “‘모든 성인의 통공’(1코린 10,16: 2코린 13,13)과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코린 1,9 :12,8,13)는 두 가지 교리에 근거한다”고 밝힌다.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서로를 기도와 선행으로 돕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며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돕는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클레멘스 5세 교황(재위 1305~1314)이 소집한 비엔나공의회(1311~1312)는 교회가 세례성사 때 세례명 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교회법 규정으로 이어졌다. 1918년의 옛 교회법 761조에서는 “본당 사목자가 신자들에게 자녀 세례명을 반드시 성인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83년의 「교회법전」 855조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제시한다. 세례를 앞둔 이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례명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당 사목자나 교리교사, 대부모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로 대부모는 16세를 채워야 하며, 소임은 세례 받을 이를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 후 이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견진과 성체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2015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사목적 혼란을 피하고자 세례명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수호성인

주보성인(主保聖人) 혹은 보호성인(保護聖人)으로 불리는 수호성인은 개인 또는 단체를 보호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수호자를 말한다. 그처럼 국가, 교구, 성당, 도시, 장소, 기관마다 특정한 성인을 모실 수 있다.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성인 공경의 한 형태로 생겨났다. 초기 교회에서는 순교자 무덤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 순교자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일이 많았다. 그런 배경에서 3세기경까지는 순교자만이 성당의 수호성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인정되고서는 증거자, 주교, 선교사, 성당의 창설자, 신비(삼위일체, 십자가, 구세주) 등도 수호성인이 됐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당뿐만 아니라 직업과 단체에 대한 수호성인까지 생기며 그 전통이 이어져 갔다.

「전례사전」에 따르면 국가부터 작은 본당 사목구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임이나 평신도 모임은 수호성인을 한 분만 선택해야 한다. 수호성인을 정하면 지역교회 관할권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수호성인이 국제적 성격을 띠었으면 성과가 이를 인준한다.

특별한 성인을 개인이 수호성인으로 삼아 세례명으로 택한 경우 교회는 수호성인의 축일을 ‘영명축일’(靈名祝日)로 축하한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특별한 성인들을 회사나 전문직, 단체의 수호성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들 삶에 있었던 사건이나 특정 때문이다. 교육자의 수호성인은 성 요한 보스코, 성체대회 수호성인은 성 파스칼 베일론, 도서관 직원들의 수호성인은 성 예로니모다. 또 아기 예수의 데레사와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은 각각 ‘선교사업’과 ‘자선단체’의 수호성인으로 불린다.

한국교회는 원죄 없으신 성모마리아와 성 요셉을 주보성인으로 삼고 있다.



BAPTISM OF THE LORD

Already in 300 AD, the Eastern Church celebrated the Epiphany and the Baptism of Jesus on 6 January. In the Western Church, this feast was mentioned in the Liturgy of the Hours. With the reform of the liturgy in 1969, the date for this Feast was set on the Sunday after the Epiphany. When the Feast of the Epiphany is not celebrated on 6 January, it is celebrated on the Sunday between 2 and 8 January, and the Feast of the Baptism of the Lord is celebrated on the Monday following the Epiphany. The Christmas Season concludes with the celebration of this Feast, even though a "window" is left open until 2 February, the day on which the Feast of the Presentation of the Lord in the Temple is celebrated. The latter feast is also known as Candlemas since Christ is proclaimed as the "light for the gentiles".

The people were filled with expectation, and all were asking in their hearts whether John might be the Christ. John answered them all, saying, "I am baptizing you with water, but one mightier than I is coming. I am not worthy to loosen the thongs of his sandals.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After all the people had been baptized and Jesus also had been baptized and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Lk. 3:15-16, 21-22).

A people's experienc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Evangelist Luke recounts that Jesus' baptism was an experience of the people: "*After all the people had been baptized*". By being in the midst of the people, Jesus manifests profound solidarity with His sinful people, giving from the very beginning a certain "stamp" to His mission. Jesus reveals that He is the One who has come to "get His hands dirty" so as to bear the sins of humanity.

The baptism

Unlike the other evangelists, Luke does not dwell on the baptism, but leaves it in the background, using a simple phrase: "*Jesus also had been baptized*". What the evangelist highlights is Jesus' behavior: "*He was praying*". This is a particularly dear theme for Luke that he repeats often in his Gospel. In this climate of prayer, Jesus receives the gift of the Spirit and is confirmed by the Father who recognizes him to be "*the beloved*" and that He is "*well pleased*" with Him, or that He has placed His trust in Jesus. This is a way of indicating that Jesus' way of drawing near to the people, of being in solidarity with them, is the reason why He was sent.

Prayer

In the context of prayer, Jesus receives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is detail suggests that every time we pray, when we are speaking one on One with God (Saint Teresa of Avila), it is possible to experience the Holy Spirit. To pray is to return to Him, to remain with Him. It is the breath of our being children of God which we were introduced to in our own baptism. Only in prayer can our lives as God's children be nourished. In moments of prayer, we allow God to say over us: "*You are the beloved*", "*You are important for me*".

The Lord's beloved

In Jesus, the Father's chosen Son, each of us is "*the Lord's beloved child*", with whom God "is pleased". This is true for me, but it is also true for every brother and sister, independently of our condition of being sinners. In baptism, what happened at Christmas happens again: God descends, He enters within me so that I might be reborn in Him as a new creature. But we are asked to bear witness to this "new life" (cf. Is. 43:19) so that just as Jesus could say, "*those who have seen me have seen the Father*" (Jn. 14:9), so too can other people say of us, "*I see Jesus in you*". Humanly this is impossible, certainly. But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Lk. 1:37).

주님세례축일과 영적진보

우리는 흔히들 영적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곳에 하느님께서 머무시도록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안에서 그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여정에서 보다 더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어려운 일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욕망에서 자유로워 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더 이루려 할 수록 우리는 더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영적인 진보는 무언가를 단순히 비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우리에게서 없애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긴 시간동안 천천히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 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 안에서는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세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순간들 역시 기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날 단 한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며, 바로 지금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일이 멈추어 졌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 역시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진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세례축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찾으시기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발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영적 여정 안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The Baptism of the Lord and Spiritual Progress

We usually say, in our spiritual journey, we have to make ourselves empty so that God can stay there. It is right, but it is truly challenging to make this happen in our daily lives.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but difficult in our spiritual journey is to be free from our desire to achieve it. The more we try to achieve the desire, the more we get disappointed and fall.

Spiritual progress does not come from just making something empty. That comes from being reborn. That is what baptism means. It is not a matter of just getting something out of us. It is a matter of being a new one. It can happen gradually in a long time, but at the same time, it can happen on every occasion and every moment in our daily lives. The more attention we pay to this fact, the more chances we can find out. In that awareness, there is no room for us to be disappointed or fall.

We are celebrating the baptism of the Lord today. We are not only celebrating the events that had happened 2,000 years ago. We are also celebrating every moment that the Lords make us reborn. It does not occur just once on our baptism day. It is happening on every occasion and at every moment in our lives.

Jesus has died and risen again so that he lives with us, baptising and renewing us right now. It has never been stopped. Jesus came to us as a human and was baptised, beginning a new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in heaven. It shows us that we humans also can make a new relationship with God, and by doing so, we can be reborn as a new being. That is what we can say "Spiritual progress".

As we celebrate the feast of the Baptism of the Lord today, may you all find more chances to begin a new relationship with God and find more opportunities to be reborn so that we all can make a little more steps in our spiritual journey.

본당소식 / Parish News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3/31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submit at front of church lobby.

◆ 구역장 모임 (ZOOM)

일시: 1/10일(월) 오후 8시

◆ 구역모임

효경: 1/12(수) 오후 8시

의견: 1/22일(토) 오후 6시 장소: 안베드로 형제님덕

경의: 1/23일(일) 장소: 양업관 도서관

◆ 이민자 미사 (Migrant Mass)

일시(Date/Time): 1/16(일/Su) 3pm

장소(Place): St. Frances Xavier Cabrini

(12687 California St., Yucaipa, CA 92399)

◆ 1/4 ~ 2/7 본당 신부님 비자 갱신 및 휴가

이 기간 동안에는 MSC 한국관구에서 김준정 리처드 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바오로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Fr. Paul Kim will be traveling to Korea for visa renewal, please keep him in your prayers.

◆ 2021년 Tax Statement Letter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1/16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2022 Envelope/DDF Pledge

구역	교무금	DDF
경의	\$7200	\$3400
군셈	\$5460	\$660
의견	\$2800	\$800
지식	\$6600	\$1750
지혜	\$11520	\$4502
통달	\$6720	\$1360
효경	\$6260	\$1260
기타	\$480	\$480
합계	\$47,040	\$14,212

*** 44가정 신립

12/26 ~ 1/2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2/24: \$573 12/25: \$660 12/26(10am): \$816 12/26(3pm): \$198
구유예물 Nativity Offering	12/24: \$1,211 12/25: \$731
교무금 Envelope	\$3,530 김모니카, 이우춘, 박용욱, 이숙, 염연광, 이명화, 조준형, 박도원, 한현매, 안요한
교구발전기금 DDF	\$800 한현매, 박도원, 박용욱
합계 Total	\$8,519



-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